

“北 남침때 美 해병대 20개 여단 출동”

매키언 美 하원 군사위원장 공개 “규모 축소로 본토엔 1개만 남을 것”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 미국이 해병대 20개 여단을 출동시키는 전쟁계획을 수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하워드 매키언(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내년도 국방수권법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제임스 아모스 해병대 사령관에게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의 전쟁계획을 질의했다”며 “이에 아모스 사령관은 해병대 20개 여단이 한반도 전장에 투입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미국 해병대의 전체 규모가 17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21개 여단 밖에 편성할 수 없다”며 “결국 (한반도 전쟁시) 해병대 1개 여단만이 미국 본토에 남아 나머지 세계를 지켜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3개 해병기동부대로 구성돼 있고 각 기동부대 산하에 해병원정여단과 3개 연대가 배치돼 있다. 또 별도로 예비군 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키언 위원장이 언급한 ‘20개 여단’이 정확하 어떤 조직

편제를 의미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 해병대 병력의 큰 부분이 출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매키언 위원장은 “시퀘스터에 따라 육군 병력이 최소 42만명 수준으로 축소되며 해병대는 17만5000명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까지 병력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1941년 진주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 숫자가 25만명이었지만 2차대전

을 거치며 수백만명으로 늘어났다”며 “이 수준에서 병력규모를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군사력을 이용해 테러세력과 해외 침략자들을 막는 대신 규제와 관료들을 동원해 혁신가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의 군사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팽창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동맹과 우방에 대한 중국의 협박, 알 카에다의 재무장, 북한의 위협과 중동의 지속적인 소요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목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美 뉴욕주 동해병기법 통과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확정된데 이어 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뉴욕주 상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까지 채택,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애도 결의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뉴욕주 상원은 6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권퍼런스(민주당 탈당의원 모임)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중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이 법안은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을 주내용으로 했으나 동해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됐다.

또 동해 병기 노력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관련 교육 내용도 막판에 빼졌다.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하는 범동포추진위원회는 뉴욕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원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통과된 아벨라 의원의 법안을 서둘러 하원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된 동해 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힘을 합쳐 만든 법률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돼 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치보에서 지난 달 여학생 200여명이 납치된 사건과 관련, 6일(현지시간) 수도 아부자에서 여성들이 정부에 이들에 대한 구출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소녀 추가 납치 ... 공포 확산

(이슬람 무장단체)

“서구식 교육은 죄악 ... 납치한 270여명 노예로 팔 것”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여학생 200여명을 단체로 납치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소녀 8명이 더 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추가 피랍은 지난 3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치보시(市)에서 여학생 276명을 소년들을 납치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라며 더 많은 여학생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나이지리아 여학생 집단 납치 사건 해결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방송사들과 인터뷰에서 “가슴이 미어질듯하고 정말 충격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납치된 나이지리아 여학생 구출 작전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며 이미 나이지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했다고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 목표는 여학생들 구출을 위해 국제사회와 나이지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상 생활을 파괴하는 단체들에 대한 문제도 폭 넓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창중 사건’ 1년 ... 美 여전히 ‘수사중’ ‘관용여권’ 소지자 면책특권 가능성 주목



윤창중(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이 어느덧 1년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레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과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반오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범인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과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반오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범인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루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과 미국 연방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노코멘트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경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에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원 출신자 신분이라는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

만약 경범죄로 결론나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연합뉴스

잉락 총리직 상실 ... 태국 현재 “권력남용”



태국 헌법재판소는 7일 잉락 친나왓 총리가 타원 플리안스리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에 대해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진 총선에서 전체 500석 중 265석을 획득해 푸어 타이당의 승리를 이끌었다. 2011년 8월 취임 후 약 2년 반 동안 시위와 정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태국의 정국을 무난히 이끌었으나, 지난해 말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뻔했던 포괄적 정치사면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잉락 총리는 즉각 총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태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태국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 여동생으로, 탁신의 후광으로 태국 정치사상 첫 여성 총리에 오른 인물이다.

잉락 총리는 정치 경력이 거의 없었으나 탁신 전 총리의 후광으로 2011년 7월 처리

이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반탁신 진영의 끊임없는 퇴진 공세에 밀려 결국 총리직을 잃게 됐다.

잉락 총리는 1967년생으로 탁신 전 총리의 근거리인 치앙마이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정치 및 행정학을 전공했다.

미국에 유학하고 탁신 전 총리가 이끌던 정보통신 그룹의 계열사와 부동산개발회사 사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www.guemyong.co.kr

충간소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InstaLay®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뛰어난 열전도성, 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주거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룸

데코타일직사각형

데코타일정사각형

(주)금융건설 InstaLay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